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경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0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9월 06일

발 의 자: 송경택,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용호,
김종길, 김형재, 김혜지,
문성호, 박상혁, 서호연,
신동원, 옥재은, 유정인,
윤영희, 이상욱, 이은림,
이종태, 이효원, 최진혁
의원(21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서울시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동시에 미래선도산업으로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은 서울시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과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붕괴된 관광업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여행업을 비롯해 이와 연계되는 숙박, 음식, 상업, 교통 등의 관련 서비스 산업의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업종별 맞춤형 종합지원대책 마련,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관광업계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UN 세계관광기구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관광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72% 감소하고, 세계 관광산업 규모는 30년 전인 1990년대 수준으로 회귀했을 만큼 타격을 입었음.
- 서울특별시 관광업계 역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여행업계를 비롯해 숙박, 음식, 교통, 기타 관련 서비스 등 관광산업 생태계 자체가 황폐화되었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역경제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음.
- 서울특별시는 2022년 위기극복 자금을 편성하여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얼어붙은 관광산업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또한 팬데믹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항공규제 정상화, 입출국 항원 검사 의무화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지만,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업계의 회복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붕괴된 서울시 관광업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업종별 맞춤형 종합지원대책 마련,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관광산업의 인식 제고 등 관광업계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관광 트렌드를 정책에 반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중장기적 스마트관광 인프라 조성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함.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서울시 관광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IT, 한류가 주도하는 문화강국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2. 09. 0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